가정간호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5년 6월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22 No.1, 109-116, June, 2015

농촌지역 노인의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 영 문[1] · 김 창 희[2]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2011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553만 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였고,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은 12.9%, 2016년에는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2).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노인세대의 양적 증가는 과거 노인세대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노인들은 물질적 풍요 뿐 아니라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두고 있어 노인의 삶의 목표와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Han, 2008).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객관적 삶의 질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삶의 상황을 의미한다면, 주관적 삶의 질은 주관적인 안녕감과 만족감, 행복감을 의미한다(Kim, Yun, &, Jang, 2003). Kim 등(2003)은 교육수준, 나이, 성별, 소득수준 등 객관적 지표로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 삶의 질 총 변량 중 15% 이하로 주관적 삶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일정시기의 삶을 객관적 지표로 단순하게 측정한 결과가 아니며, 계속적인 발달의 과정으로 노인이 일상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긍정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개인적 기본욕구가 충족될 때 더욱 증가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하여 노인의 주관적 견해와 개인적인 욕구가 강조되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an, 2008).

인간의 성생활은 신경, 뇌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자극이 가해지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 되어 활력을 찾게 된다. 성생활은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증가시켜 근육, 뼈, 음식섭취, 성장호르몬의 분비 등을 촉진시키며, 노인의 뇌를 자극해 노화와 치매 건망증의 진행 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전립선을 보호한다(Page & Matsmoto, 2008). 인간은 노화과정을 거치면서 생리학적 성기능이 서서히 감소하지만 성 생활에 대한 욕구와 성 활동은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해서 성 욕구와 성 활동이 반드시 감퇴한다고 할 수 없다. 노년기의 성은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기쁨과 만족감, 친밀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Gott & Hinchliff, 2003).

최근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성 생활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Kim, 2003).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노인의 성관련 표현이나 성생활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성을 젊은 사람의 소유물로 단정 짓고 노인에게 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노인의 성적 활동에 대한 관심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사회풍토로 인하여 노인의 삶에서 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Yang, Kim, Jeong, &, Kim, 2003). 하지만 노인의 성에 대한 그릇된 사회풍토나 편견과는 상관없이 노인들은 성적인 욕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어 : 노인, 성, 주관적 삶의 질
1)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2)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nursech@hanmail.net)
투고일: 2015년 6월 2일 수정일: 2015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2일

Kim (2007)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보다는 성 생활만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e와 Kim (2007)의 연구에서도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답한 노인집단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재가노인의 83%가 한 달에 1~2회 성생활을 하며, 남성노인의 60.8%는 이성과 성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Lee & Kim, 2007; Yoo, 2010). 긍정적인 성 태도와 성 욕구대처행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Ra & Kim, 2011). 이렇듯 노인의 성생활은 삶의 중요한 활력소로 작용하여 신체와 정신에 좋은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의미가 있다(Lee & Kim, 2007). 이는 노인의 삶에서 성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요인임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이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노인의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과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를 파악으로써 노인 성 간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노인의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과 주관적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한다.
- 노인의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노인의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는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근접 모집단은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C도의 Y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선정기준은 인지적, 신체적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답할 수 있는 자이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표본수 산출을 위해 오픈 웨어로 공개된 G power 3.1.9.2 프로그램(http:www.gpower.hhu.de/)을 이용하였다. 선형 회귀분석 연구에서 중간 효과크기(effect size) .15, 유의수준 α=.05, 검정력(1-ß)=.95, 예측인자 3개를 적용했을 때 표본수는 119명으로 나와 본 연구의 표본수는 적절하였다. 불충분한 응답자의 탈락을 고려하여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3명을 제외한 12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성 인식

노인의 성 인식은 Lee (1999)가 개발하고 Jeong (2007)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Jeong (200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5이었다.

● 성 태도

노인의 성 태도는 White (1982)가 개발한 ASKAS(Aging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acle)를 Park (2008)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허용적임을 의미한다. Park (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8이었다.

● 성 대처행동

노인의 성 대처행동은 Park과 Chun (2002)이 개발하고 Na (2006)가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적 표현성 8문항과 성적 통제성 8문항,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표현성과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Na (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다.

●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은 Yoon, Kook, Lee, Shin과 Kim (1999)이

개발한 한국어판 주관적 삶의 질 도구를 Yoon과 Park (200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과 Park (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7이었다.

자료 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이며, 교육받은 연구보조원이 직접 C도 Y군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보조원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원하지 않을 경우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23명에게 일대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응답시간은 30분 정도이며, 설문의 내용이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므로 응답 장소가 너무 개방된 곳은 피하였고, 대상자들에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응답한 후에는 즉시 응답자가 자신의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봉하도록 하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Ver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평균비교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 평균비교는 Scheffe test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주거형태와 만성질환 수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평균비교는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고,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및 주관적 삶의 질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남자가 62명(51.7%), 여자가 58명(48.3%)이었고, 평균 연령은 71.8세이고, 65세부터 75세가 88명(73.4%), 76세 이상이 32명(26.6%)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41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불교가 49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117명(97.5%)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상태는 89명(74.2%)이 기혼자였고, 동거가족 형태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대상자가 81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건강문제라고 답한 대상자가 67명(55.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농사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상자가 46명(38.3%)으로 가장 많았다. 만성 질환의 개수는 2가지 이하가 116명(96.7%)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 평균이 높았고(t=2.82, p=.006), 연령은 65~75세 그룹이 76세 이상 그룹보다 높았으며(t=2.55, p=.012), 교육수준은 고교 졸업자의 주관적 삶의 질 평균이 가장 높았고(t=4.44, p=.002), 사후분석에서도 고교졸업자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룹이나 초등학교졸업 그룹보다 주관적 삶의 질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가톨릭 그룹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t=3.60, p=.016).

대상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 성 태도, 성 인식, 성 대처행동의 정도

대상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 성 태도, 성 인식, 성 대처행동 유형 정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삶의 질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총점 115점 중 평균 80.68±9.18점이었고, 성 태도는 총점 55점 중 평균 34.11±5.94점이었으며, 성 인식은 총점 75점 중 평균 47.15±9.00점이었다. 성 대처행동은 총점 80점 중 36.67±7.34점이었고, 성 대처행동의 하위요인별로는 표현적 성 대처행동은 총점 40점 중 19.14±4.71점, 통제적 성 대처행동은 총점 40점 중 17.53±4.69로 나타났다.

성 태도, 성 인식, 성 대처행동과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

대상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삶의 질은 성 태도(r=.34, p<.001), 성 인식(r=.480, p<.001), 성 대처행동(r=.28, p=.002), 표현적 성 대처행동(r=.39,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 태도는 성 인식(r=.70, p<.001), 표현적 성 대처행동(r=.31,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성 인식은 표현적 성 대처행동(r=.35,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1> Subjectiv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Subjective Quality of Life	
				M(SD)	t/F/U(p)
Gender	Male	62 (51.7)		82.90(8.45)	2.82(.006)
	Female	58 (48.3)		78.31(9.41)	
Age(yr)	65～75	88 (73.4)	71.76(5.33)	81.94(9.34)	2.55(.012)
	76～	32 (26.6)		77.22(7.89)	
Education	Uneducated [a]	11 (9.2)		74.82(8.28)	4.44(.002)
	Elementary school [b]	41 (34.3)		78.00(8.05)	
	Middle school [c]	25 (20.8)		81.04(7.25)	a>d†
	Hight school [d]	29 (24.2)		85.10(10.77)	b>d
	College [e]	14 (11.7)		83.36(8.34)	
Religion	Buddhism	49 (40.8)		83.20(8.36)	3.60(.016)
	Christianity	18 (15.0)		76.94(10.01)	
	Catholic	12 (10.0)		83.50(9.12)	
	Others	41 (34.2)		78.49(8.96)	
Living	Owner-occupation	117 (97.5)		80.86(9.02)	113.50(.313)‡
	Monthly rent	3 (2.5)		73.67(14.84)	
Marital status	Married	89 (74.2)		81.43(8.65)	1.51(.133)
	Single, Divorce, Bereavement	31 (25.8)		78.55(10.42)	
Residence	Living with son	20 (16.7)		83.40(9.66)	1.84(.163)
	Living with spouse	81 (67.5)		80.69(8.39)	
	Living alone	19 (15.8)		77.79(11.38)	
Problem	Health	67 (55.8)		80.79(9.24)	.71(.492)
	Financial difficulty	19 (15.8)		79.32(10.65)	
	Others	25 (20.9)		79.26(9.67)	
Income	Agriculture	46 (38.3)		81.63(9.35)	0.48 (.698)
	Pension	36 (30.0)		80.97(8.49)	
	Others	38 (31.7)		79.18(9.67)	
Number of chronic disease	0～2	116 (96.7)		80.81(8.99)	194.00(.578)‡
	3～4	4 (3.3)		77.00(15.17)	

† Post-hoc: Scheffe test
‡ Nonparametric test: Mann-Whitney U test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Sexual Perception, Sexual Attitude, and Sexual Coping Behavior (N=120)

Variables	Categories	M(SD)	Possible Range	Observed Range
Subjective quality of life		80.68(9.18)	23～115	59～100
Sexual perception		47.15(9.00)	15～75	26～75
Sexual attitude		34.11(5.94)	7～55	29～47
Sexual coping behavior (SCB)	Total	36.67(7.34)	16～80	17～56
	Expressive	19.14(4.71)	8～40	8～32
	Regulated	17.53(4.69)	8～40	8～29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주관적 삶이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 관련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잔차의 독립성,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연구변수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498～0.970으로 0.1이상이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31～2.007로 1이상 10미만의 범주에 속해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은 Dubin-Watson 통계량이 1.799로 2에 가까워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음, 즉 잔차의 독립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001 미만으로 나타나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F=14.24, p<.001).

본 연구결과의 회귀방정식은 [Y(주관적 삶의 질)=49.991(B)+

<Table 3> Correlations amo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Sexual Perception, Sexual Attitude, and Sexual Coping Behavior (N=120)

Variables	Subjective quality of life	Sexual perception	Sexual attitude	Sexual coping behavior	Expressive SCB*	Regulated SCB*
	r(p)	r(p)	r(p)	r(p)	r(p)	r(p)
Sexual perception	.48 (<.001)	1.				
Sexual attitude	.34 (<.001)	.70 (<.001)	1			
Sexual coping behavior (SCB*)	.28 (.002)	.17 (.060)	.11 (.256)	1		
Expressive SCB*	.39 (<.001)	.35 (<.001)	.31 (.001)	.78 (<.001)	1	
Regulated SCB*	.40 (.663)	-.09 (.349)	-.15 (.101)	.78 (<.001)	.22 (.016)	1

* SCB : Sexual Coping Behavior

<Table 4> Association of Sexual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 and Sexual Coping Behavior with Subjective Quality of Life (N=120)

Model	B	SE	β	t	p	Adj R^2	F	p	tolerance	VIF	Durbin-Watson
Constant	49.99	5.39		9.27		.250	14.24	<.001			1.799
Sexual perception	0.45	0.12	0.44	3.94	<.001				.498	2.007	
Sexual attitude	0.01	0.17	0.00	0.03	.974				.508	1.969	
Sexual coping behavior	0.25	0.10	0.20	2.49	.014				.970	1.031	

.452(성 인식)+ .251(성 대처행동)+오차]로서, 다중회귀모형에서 성 인식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0.452만큼 증가하고, 성 대처행동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주관적 삶의 질은 0.25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 인식과 성 대처행동이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였고, 성 인식이 주관적 삶의 질과 가장 큰 영향 관계를 보였다. 성 인식과 성 대처행동은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25.0% 설명하였다(F=14.24,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성별, 나이, 교육수준,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은 차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a와 Kim (201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Jang (201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일수록 성별에 따른 학력의 차이, 사회활동의 차이, 경제 주도권의 차이 등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향후 대상자 특성에서는 인구학적 변수 외에 사회경제학적인 변수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연령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는 65~75세 그룹이 76세 이상 그룹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Park (201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른 삶의 질에 차이가 없다고 한 선행연구(Jang, 2011)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6~70세 연령 그룹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Ra & Kim, 2011)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의학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연령과 건강상태가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지역에 따른 주거환경과 문화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의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자 그룹이 교육을 받지 못한 그룹과 초등학교 졸업자 그룹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대학 졸업자 그룹은 고교 졸업자 그룹에 비해 삶의 질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타 연구결과(Jang, 2011; Kim, 2007)와는 차이를 보였다. 대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보장책이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활동의 폭도 넓을 것으로 예상되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사지역이 농촌지역의 특성이 강한 곳임을 고려할 때 추후에는 교육 이외에 직업과 사회활동, 삶의 근거지로서의 지지그룹 등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회적 변수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종교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후검정에서 각 종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종교 유형이나 종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은 아직까지 통일된 연구결과가 없어 추후 더 탐색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연구마다 연구 대상자를 편의추출한 결과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애 주기별 삶의 조건과 주거 환경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확대하여 무작위 추출하거나 외생변수를 층화하여 반복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Ra & Kim, 2011; Song, 2006). 성 태도는 성에 대한 가치나 신념의 표현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아직 우리나라는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유교적 사상이 만연해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성을 추하거나 부끄러워 억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성생활이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한다는 개방적, 수용적 성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방적인 노인 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성 인식이 높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인식이란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욕구, 태도, 중요도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Kim, 2007). 노인의 성 인식은 여성보다 남성 노인이 높고, 교육정도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높다고 한 선행연구(Kim, 2007)와 유사한 결과를 의 결과와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결과를 살펴볼 때 추후 성별, 교육정도 특성과 성 인식, 그리고 성 인식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성 인식이 삶의 질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Song (2006)과 Kang (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Kim과 Lee (2015)는 긍정적인 성인식은 성생활의 만족감을 증가시키며, 성생활 만족감이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결과(Kim, Y. J., 2003; Kim & Lee, 2010)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렇게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각 연구마다 연구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대상자들이 처해있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조건이 다르고, 노년기의 성이 직접적인 성적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상실되어지는 사회활동 중심의 사회관계를 대신하여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결해 주는 애정적, 정신적 위로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표현적인 성 대처행동 유형일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적인 성 대처행동은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Ra & Kim, 2011; Rim & Park, 2011)와 일치하는 것으로 Kang (2014)은 성 욕구에 대한 대처행동이 배우자나 이성 친구를 통하여 개방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61.7%, 취미, 운동과 종교적 힘 등 폐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24%라고 하였다. 또한 성생활을 즐기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성생활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관련성이 높았다(Kim & Lee, 2010; Shin & Kim, 2013).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대중매체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노인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과거보다는 개방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표현적 성 대처행동을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노인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표현적 성 대처행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성 인식과 성 대처 행동의 설명력이 25%로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Kim, S. G., 2003)와 유사한 결과로 노인의 성이 단순한 생리학적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간의 연대감과 자기 존재감 및 정신적 만족감을 주어 노년기의 고독과 우울을 해소하고 삶의 보람을 높여주기 때문이다(Jeong, 2010; Kim, 2007). 특히 선행연구(Jeong, 2010)에서 노인의 성 인식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과거-현재-미래 사이의 조화된 견해를 갖게 하고 다가올 생의 마지막 단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게 하여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년기의 성은 신체적인 성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위로, 의사소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인의 삶에 중요한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에서 성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요인임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 표현적 성 대처 행위는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Shin & Kim, 2014), 궁극적으로는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가족이나 사회구성원들부터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노년기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표현적 성 대처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이를 위한 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성 태도와 성인식 및 표현적 성 대

처행위 증가를 위한 노년기 부부의 성적 적응과 부부의 관계성 증진을 위한 집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안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는 성 인식, 성 태도, 성 대처행동 유형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에 따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삶의 질과 성 태도, 성 인식, 표현적 성 대처행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성 인식, 성 대처행동유형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하여 25.0%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주관적 삶이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성 태도와 성 인식, 표현적 성 대처행위를 위한 노인의 성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첫째,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자를 확률 표집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 이외에 노인의 주관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의 성 관련한 다른 영향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노년기 부부를 위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넷째, 노인 가족과 사회구성원 대상의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Gott, M., & Hinchliff, S. (2003). How important is sex in later life? The Views of older people. *Social Science & Medicine, 56*, 1617-1628.

Han, H. S. (2008). A study on objective and subjective satisfact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6*, 347-372.

Jang, B. G.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lderly's employment activity on their subjective quality of life :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Seoul.

Jeong, H. W. (2007). *A Study on the change of sex perception through sex education programs for aged pers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Jeong, J. Y. (2010). A study of the olds culture in modern society. *The Society of Korean Thought and Culture, 50,* 607-633.

Kang, U. (2014). *A study on the elderly men and women's sexual perception, actual state of sexual life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im, S. G. (2003). *Study related to sexual effected to quality for living of the aged pers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im, Y. J. (2003). Perception of elderly sexuality and the sexual life of those who have spous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5), 133-143.

Kim, Y. A. (2007). *A study on the elderly's satisfaction with sex liv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im, B. M., & Lee, E. H. (2015). The medicating effect of senior citizens's sexual desire-coping behavior on sexual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575-585.

Kim, C. M., & Lee, H. S. (2010). The relation between sex perception, sex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21*(3), 282-292.

Kim, Y. T., Yun, C. Y., & Jang, C. H. (2003). Analyz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scales and factors for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2*, 313-331.

Lee, C. E.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the sex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Lee, I. S., & Kim, H. S. (2007). Sexual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1*(2), 158-170.

Na, I. S. (200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sexual cop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3), 547-563.

Page, S., & Matsmoto, A. (2008). Effects of testosterone therapy in older me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9*(16), 1900-1901.

Park, M. H. (2008).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on the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Park, N. H. (2013). *A Study on the job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elderly participants in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Park, Y. S., & Chun, Y. M. (2002). Development of the sexuality inventory f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891-909.

Ra, D. S., & Kim, Y. D. (2011). The impact of the elderly's sexual lif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85-204.

Rim, C. S., & Park, M. Y. (2011). A study on old people's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and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31-154.

Shin, S. I., & Kim, Y. H. (2013). A meta-analysis on related variables of elders'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6), 3673-3690.

Shin, G. Y., & Kim, E. K.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vulnerable elderly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3), 419-431.

Song, N. W. (2006). A study on the sex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Korea Journal of 21 Century Social Welfare. 3,* 179-206.

Statistics Korea. (2012). Statistics of high elderly population 2011. Retried January 20, 2012, from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White, C. B. (1982).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attitudes and knowledge regarding sexuality in the aged. *Archives of sexuality behavior, 11*(6), 491-502.

Yang, S. O., Kim, S. S., Jeong, G. H., & Kim, S. J. (2003). Life style and awareness of sexuality in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5*(2), 158-170.

Yoo, S. Y. (2010).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older adul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Yoon, J. S., Kook, S. H., Lee, H. Y., Shin, I. S., & Kim, A. J. (1999). Sleep pattern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nurse on rotating shift and daytime fixed work schedule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8*(4), 713-722.

Yoon, J. W., & Park, Ye. S. (2008). Communication type related to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emergency room.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12*(1), 1-12.

Effects of elderly's sexual perception, sexual attitude, and sexual coping behavior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Cho, Young Mun[1] · Kim, Chang Hee[2]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lderly's sexuality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perception, attitude, and coping behaviors regarding sexuality in the elderl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20 indivisuals, aged 65 or over, located in Y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June, 2012 by a questionnaire survey. Data analysis was done by using SPSS WIN 18.0 program including one-way ANOVA, independen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predicting variable affect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was sexuality perception (B=0.45, p<.001), and sexual coping behavior (B=0.25, p=.014) and they have a 25.0%(Adj R^2=25.0) explanatory power for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Conclusion:** To increase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t is necessary for the individuals to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sexuality and the expression of positive sexual coping behavior.

Key words : Elderly, Sexuality, Subjective Quality of Lif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Chang Hee*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KwanJeoDong-ro, Seo-gu, Daejeon, 302-718, Korea
Tel: 82-42-600-6367 Fax: 82-42-600-6314 E-mail: mssong@konyang.ac.kr